

간호사의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외선¹, 구미옥^{2*}, 김미정³

¹창신대학교 간호학과, ²경상대학교 간호대학, ³창원문성대학 간호과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Ego Resilience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es

Lee Oi Sun¹, Gu Mee Ock^{2*}, Kim Mi Jung³

¹Department of Nursing, Changshin University

²College of Nurs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³Department of Nursing, Changwon Moonsu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사의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간호사 20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3년 9월 5일부터 2013년 9월 2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SPSS WIN 18을 이용하여 빈도, t-test, ANOVA, 피어슨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사의 대인관계능력은 감성지능 ($r=.600, p<.001$), 자아탄력성 ($r=.421, p<.001$)과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대인관계능력에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설명력은 41.6%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사의 대인관계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ego-resilience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es. Subjects were 206 nurses in Korea.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5 to September 20, 2013.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Win 18.0. Interpersonal relationship strong positively correlated with emotional intelligence ($r=.600, p<.001$) and ego-resilience ($r=.421, p<.001$) in nurses, emotional intelligence and ego-resilience explained 41.6% of total varianc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implement program for improving emotional intelligence and ego-resilience of nurses

Key Words : Ego-resilience,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Nurse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는 환자관리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며[1], 간호인력의 효율적 관리는 조직성공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직성공을 증진시키기 위한 핵심역량을 증진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1].

대인관계능력은 다른 사람의 마음, 감정, 느낌을 잘

이해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효과적이고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능력으로[2] 간호사는 일방적인 건강요구를 가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끊임없이 접촉해야 하고 조직 내 다양한 직종들과 의사소통해야 하므로 대인관계능력이 절실히 요구된다[3]. 대인관계능력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적응을 높이고 조직차원에서는 집단의 응집력과 직무만족 등에 영향을 미치며[4], 환자 보호자와 치료적 관계를 수립하고 다양한 의료인과 협조적인 인관관계를 가 능하게 하므로 간호업무성과[5]와 직결되는 간호사가 갖

*Corresponding Author : Mee-Ock Gu(Gyeongsang National Univ.)

Tel:+82-55-772-8226 e-mail: mogu@gnu.ac.kr

Received April 28, 2015

Accepted June 11, 2015

Revised May 20, 2015

Published June 30, 2015

추여야 할 핵심역량 중의 하나이다. 선행연구[3,4]에서 간호사의 대인관계 능력은 중간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간호사의 핵심역량 중의 하나인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감성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감성을 활용하는 능력으로[6], 자신의 감성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 자신이 처한 환경에 유연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며, 대인관계에 있어서 개방적인 의사소통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의사소통과정에서 충동을 감소시켜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7].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고[3,4,5], 직무스트레스[8]를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나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 적절한 자아통제를 바탕으로 융통성 있게 반응하여 성공적인 적응을 이룰 수 있는 능력으로[9], 자아탄력적인 사람은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적 요구에 대해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역동적 능력을 가지고 부정적 정서 경험으로부터 회복하는 힘이 클 뿐만 아니라 직면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적게 지각하여[8] 적응을 촉진하는 변인으로 대인관계의 어려움, 갈등상황에서 적응을 촉진한다[9].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며[10], 직무스트레스는 낮고 직무만족은 높은 것[11]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12],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아탄력성과 대인관계능력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없어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지금까지 간호사를 대상으로 이들 세변수의 관계를 연구하여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이들 변수의 영향을 규명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사의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및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대인관계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사의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사의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및 대인관계능력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및 대인관계능력을 파악한다.

셋째, 간호사의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및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의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G도 소재 C시에 있는 요양병원 1곳과 종합병원(400병상미만) 2곳에 근무하면서 본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간호사들이다.

표본 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효과크기를 .20로 설정하고, 유의수준 .05, 검증력 .80로 설정하여 G power program으로 계산하였을 때 150명으로 계산되었다[13]. 부실한 응답을 고려하여 총 216명에게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설문지 응답이 부실한 10명을 제외하고 최종 20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조사지

선행연구를 토대로 간호사의 연령, 결혼상태, 교육정도, 임상경력, 근무병동, 직위, 병원규모 등 총 7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2.3.2 감성지능

Wong과 Law[6]가 개발한 Wong &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WLEIS) 도구를 Hwang[14]이 번안한 도구로 4개 하위영역 총 16문항으로 자기감성이해 4문항, 타인감성이해 4문항, 감성조절 4문항, 감성활용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9$ 이었다.

2.3.3 자아탄력성

Klohn[9]이 개발한 자기 보고식 자아탄력성 도구를 Park[15]이 번안한 도구로 4개 하위영역 총 29문항으로 자신감 9문항, 대인관계 효율성 8문항, 낙관적 태도 10문항, 숙련된 표현력 2문항,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2.3.4 대인관계능력

Guerny[16]이 개발한 대인관계변화척도(Relationship Changes scale, RCS)을 Mun[17]이 번안한 것을 기초로 Jang[18]이 수정, 보완한 도구로 6개 하위영역 총 18개 문항으로 의사소통 3문항, 신뢰감 3문항, 친근감 3문항, 민감성 2문항, 개방성 4문항, 이해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Jang[18]의 연구결과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9$ 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을 위하여 본 연구자가 간호사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간호사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9월 5일부터 9월 20일까지였으며, 배부된 216부의 설문지중 응답이 불성실한 10부를 제외한 206부(95.3%)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간호사의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및 대인관계 능력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간호사의 일반

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및 대인관계능력 차이는 t-test 또는 ANOVA, 사후 검정은 Scheffe 검정을 실시하였다.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및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은 만 25세 이하가 69명(32.9%), 만 25세에서 만 29세가 56명(26.7%), 35세 이상이 55명(26.2%)이었다. 결혼은 미혼이 130명(61.9%)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정도는 3년제 졸업이 153명(72.9%)로 가장 많았다. 총 임상경력은 1~3년이 61명(29.0%), 10년 이상 49명(23.3%), 5~10년이 42명(20.0%)순이었다. 근무부서는 외래 및 기타병동이 71명(33.8%)으로 가장 많았고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172명(81.9%)로 가장 많았다. 병원규모는 300병상이 97명(46.2%)로 가장 많았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0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	25>	69	32.9
	25-29	56	26.7
	30-34	26	12.4
	35≤	55	26.2
Marital Status	Single	130	61.9
	Married	76	36.2
Education	Associate	153	72.9
	Bachelor	47	22.4
	Master	6	2.9
Total career (year)	<1	29	13.8
	1~3	61	29.0
	3~5	25	11.9
	5~10	42	20.0
	>10	49	23.3
Type of unit	Medical	40	19.0
	Surgical	48	22.9
	Outpatient clinic and other units	71	33.8
	Special units	47	22.4
Position	Staff nurse	172	81.9
	Charge nurse	20	9.5
	Head nurse	14	6.7
Number of beds	100>	39	18.6
	100~300	70	33.3
	300<	97	46.2

3.2 간호사의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및 대인관계능력

간호사의 감성지능은 5점 만점에 평균 3.33점이었으며 하위 영역 중 타인감성이해 3.4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기감성이해 3.39점, 감성활용 3.30점, 감성조절 3.15점 순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30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 중 자신감 3.42점으로 가장 높았고, 낙관적 태도 3.37점, 대인관계 효율성 3.17점, 숙련된 표현력 2.97점 순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37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 중 친근감 3.53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해성 3.43점, 신뢰감 3.42점, 의사소통 3.30점, 개방성 3.29점, 민감성 3.25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Level of Emotional intelligence, Ego-resili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N=206)

Variables	Categories	Mean±SD
Emotional intelligence	Self- emotional appraisal	3.39±.44
	Others' emotionals appraisal	3.46±.46
	Use of emotionals	3.30±.46
	Regulator of emotionals	3.15±.77
	Total	3.33±.43
Ego-resilience	Optimistic attitude	3.37±.39
	Efficacy of Interpersonship	3.17±.57
	Confidence	3.42±.55
	Skilled expressiveness	2.97±.78
	Total	3.30±.42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munication	3.30±.56
	Intimacy	3.53±1.08
	Openness	3.29±.46.
	Understanding	3.43±.51
	Trust	3.42±.51
	Sensitivity	3.25±.56
	Total	3.37±.43

Table 3. Emotional Intelligence, Ego-resili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206)

Variables	Categories	Emotional intelligence			Ego-resili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Mean ± SD	t or f	p	Mean ± SD	t or f	p	Mean ± SD	t or f	p
Age	25>	3.21±.40 ^a	3.53	.016 (d>c>b>a)	3.22±.42	1.63	.183	3.32±.45	1.84	.140
	25-29	3.31±.35 ^b			3.29±.41			3.39±.42		
	30-34	3.38±.40 ^c			3.30±.42			3.25±.55		
	35≤	3.45±.42 ^d			3.38±.42			3.46±.32		
Marital Status	Single	3.25±.42 ^a	-3.15	.002(b>a)	3.24±.41 ^a	-2.51	.013(b>a)	3.34±.44	-1.47	.141
	Married	3.44±.42 ^b			3.39±.41 ^b			3.43±.39		
Education	Associate's	3.31±.43	.095	.385	3.28±.40	0.53	.589	3.35±.45	1.07	.344
	Bachelor	3.38±.44			3.35±.48			3.44±.35		
	Master's	3.14±.15			3.24±.40			3.24±.08		
Total career (year)	<1	3.17±.36	1.72	.145	3.18±.40	1.68	.155	3.20±.37	1.78	.132
	1~3	3.30±.41			3.25±.44			3.41±.46		
	3~5	3.29±.47			3.27±.42			3.38±.43		
	5~10	3.40±.53			3.31±.34			3.33±.44		
	>10	3.40±.34			3.41±.45			3.45±.39		
Type of unit	Medical	3.25±.37	0.79	.498	3.31±.33	1.50	.215	3.31±.41	0.54	.655
	Surgical	3.36±.39			3.26±.45			3.34±.32		
	Outpatient clinic and other units	3.36±.49			3.36±.42			3.40±.40		
	Special units	3.29±.42			3.20±.44			3.41±.56		
position	Staff nurse	3.31±.43	0.93	.395	3.27±.39	1.70	.184	3.36±.43	1.28	.280
	Charge nurse	3.33±.40			3.32±.43			3.31±.46		
	Head nurse	3.47±.37			3.49±.64			3.54±.32		
Number of beds	100>	3.41±.50	1.62	.200	3.38±.34	1.18	.309	3.43±.34	1.90	.151
	100~300	3.34±.36			3.27±.47			3.42±.49		
	300<	3.27±.44			3.27±.40			3.31±.41		

3.3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및 대인관계능력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은 연령, 결혼 상태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35세 이상이 25세 이하보다 감성지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3.53, p=.016$).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는 기혼이 미혼보다 감성지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3.15, p=.002$).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은 결혼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기혼이 미혼보다 자아탄력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2.51, p=.013$).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능력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3.4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및 대인관계능력의 상관계

간호사의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및 대인관계능력 간의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감성지능은 자아탄력성($r=.330, p<.001$), 대인관계능력($r=.600,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과 대인관계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아탄력성은 대인관계능력($r=.421,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Table 4].

Table 4. Correlations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Ego-resili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N=206)

Variables	EI	ER	IR
EI	1		
ER	.330($p<.001$)	1	
IR	.600($p<.001$)	.421($p<.001$)	1

EI=Emotional intelligence, ER=Ego-resilience, IR=Interpersonal relationship

3.5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인관계능력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난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을 예측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한 결과 Durbin

Watson 값은 2.101으로 나타나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차한계가 .891로 1.0이하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인자가 1.123로 기준이 10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지능, 자아탄력성을 예측변수로 하여 간호사의 대인관계능력을 설명하는 선형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72.22, p<.001$), 대인관계능력에 감성지능($\beta=.517, p<.001$)이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대인관계능력을 36.0% 설명하였다. 이후 자아탄력성($\beta=.250, p<.001$)이 대인관계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대인관계능력을 5.6% 추가 설명하였다. 이들 두 변수에 의한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총 설명력은 41.6 %였다[Table 5].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N=206)

Variables	β	R ²	CumR ²	t	p
Constant				3.662	<.001
EI	.517	.360	.360	9.104	<.001
ER	.250	.056	.416	4.397	<.001
$F=72.22, p<.001$					

EI=Emotional intelligence, ER=Ego-resilience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 중 하나인 대인관계능력에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요양병원과 종합병원(400병상 미만)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감성지능이 평균 3.33점(범위 1-5점)으로 중간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로 5개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4] 3.42점,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3] 3.50점,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19] 4.83점(범위 1-7점, 5점 환산 시 3.45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병원규모별 간호사의 감성지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나 선행연구에서 간호사의 연령, 결혼유무 등 일반적 특성에 따라 감성지능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위영역에서는 타인감성이해, 자기감성이해가 높고, 감성활용, 감성조절은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결과[3,4,12]와 유사하다. 감성활용과 감성조절은 감성지능 구성요소 중 상위단계 [6]이며, 감성활용은 개인의 기억 속에 있는 감정정보를

조직하고 활용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도와주고 감정을 개인의 성과와 건설적인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며 [6], 감성조절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즉시적인 행동을 하는 충동적인 행동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주어진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향의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다. 본 연구 결과는 간호사의 감성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감성지능의 상위단계인 감성조절과 감성활용능력을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20] 감성지능 향상 프로그램 적용 후 감성조절과 감성활용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향후 간호사를 위한 감성지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은 연령, 결혼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일수록 감성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인 선행연구 결과 [21]와 일치한다.

간호사의 자아탄력성은 3.30점(범위1-5점)으로 중간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다른 도구를 사용한 연구와 비교해 보면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22] 3.30점과 일치하며,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중앙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23] 3.17점보다는 높게 나타났지만 중간보다 다소 높은 것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하위영역에서는 자신감이 가장 높고 대인관계 효율성, 숙련된 표현력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다른 도구를 사용한 Im 등[22]의 연구에서 대인관계가 가장 높고, 호기심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부 영역 중 대인관계 효율성, 숙련된 표현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므로 간호사의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의사소통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은 결혼유무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기혼일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11,24]와 일치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연령과 직위[25], 결혼상태[11]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간호사의 대인관계능력은 평균 3.37점(범위 1-5점)으

로 중간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로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3] 3.49점, 2차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4] 86.04점(범위 25-125, 5점 환산 시 3.44)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하위영역에서는 친근감, 이해성이 높고, 개방성, 민감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친근감과 이해성이 높고 의사소통과 개방성이 낮은 점수를 보인 선행연구결과[3,4]와 유사하다. 개방성은 자신의 내면을 솔직히 드러내는 것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만족감을 얻는 것으로 환자, 보호자와의 관계에서는 간호사 자신의 내면을 솔직히 전달하기 어려우며, 실제 감정과 무관하게 상대방으로부터 요구되는 감정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사는 동료, 다른 의료팀과의 정직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신뢰감 및 팀워크 형성에 도움이 되므로[4] 대인관계 능력 중 개방성 증진에 보다 치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민감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민감성은 자신이 상대를 중요하게 인식하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간호사는 바쁜 업무로 인해 환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 대인관계능력 하위영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민감성을 기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능력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결과[3,4]에서는 연령, 임상경력, 결혼유무에서 차이를 보여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간호사의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간호사의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를 본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결과[26]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선행연구[23]에서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인 감성을 활용하여 심리적, 생리적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회복하는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26]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성을 활용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찾으며 효과적으로 감성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어 향후 연구에서는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간의 관계의 방향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인관계능력을 41.6%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2]에서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대인관계 문제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결과와 일치한다.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 중 감성지능이 대인관계능력에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대인관계 능력을 36.0% 설명하였다. 이는 감성지능과 대인관계 능력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결과[3,4]를 지지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2]에서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 중 감성지능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감성지능이 높을 경우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여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여 상대를 배려하고 공감을 잘하며, 감정조절을 통해 의사소통 과정에서 충돌을 감소시키고 감정활용을 통해 부정적 감정 대신 긍정적인 감정을 활용함으로써 대인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자아탄력성은 감성지능이 대인관계능력을 설명한 이후 5.6%의 설명력을 추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탄력성이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인 것으로 규명되었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아탄력성과 대인관계능력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었는데 본 연구는 이들 관계를 규명하였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자아탄력성의 추가 설명력이 낮은 이유는 본 연구에서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정적상관관계($r=.330, p<.001$)을 보여 자아탄력성의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영향력이 이미 감성지능에 의해 설명됨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의 제한점을 보면 연구대상자를 G도 소재 C시에 있는 요양병원 1개 곳과 종합병원(400병상미만) 2곳에 총 3개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편의 표집하여 조사한 결과로 연구결과를 전체 간호사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간호사의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대인관계능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이임이 확인 되었으므로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사의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간호사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대인관계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설명력은 41.6%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간호사의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할 것과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 간의 관계의 방향을 규명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J. H. Kim, J. E. Song, S. K. Lee, S. K. Heo, Y. H. Sung, J. E. Lee,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Clinical Nurses -A Preliminary Study for an Education Program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1), pp.80-89, 2011.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1.17.1.080>
- [2] H. Gardner, Mi. L. Kornhaber, W. K. Wake, "Intelligence: Multiple Perspectives", New York: Basic Books, 1995.
- [3] E. K. Mun, "The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Burnout of Hospital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2012.
- [4] H. R. Ko, J. H. Kim, "The Relationships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Job Satisfaction of Clinical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3), pp.413-423, 2014.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3.413>
- [5] S. J. Lee,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Nursing performance among Clinical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u University, Suwon, 2013.
- [6] C. S. Wong, & K. S. Law,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13(3), pp.243-274, 2002.
DOI: [http://dx.doi.org/10.1016/S1048-9843\(02\)00099-1](http://dx.doi.org/10.1016/S1048-9843(02)00099-1)

- [7] M. J. Rosa, "Emotional skill-key components i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Governance*, 1(1), pp.237-251, 2011.
- [8] K. H. Lee, J. Y. Song,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Self-Efficacy and Job Stress of Nurses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6(1), pp.17-25, 2010.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0.16.1.17>
- [9] E. C. Klohnen,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5), pp.1067-1079, 1996.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70.5.1067>
- [10] S. Y. Kim, "The effect of Nurse's Ego-resilience on stress response and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2014.
- [11] B. N. Kim, S. H. Oh, Y. S. Park, "A Study of Nurses' Resilience, Occupational Stress and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0(1), pp.14-23, 2011.
DOI: <http://dx.doi.org/10.4069/kjwhn.2014.20.1.14>
- [12] J. Y. Kim, "The Influence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ego-resilience on interpersonal problems in undergraduate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2007.
- [13] F. Faul, E. Erdfelder, A. G. Lang, & A. Buchner,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 pp.1149-1160, 2009.
DOI: <http://dx.doi.org/10.3758/BRM.41.4.1149>
- [14] P. J. Hwang, "A Study on the Influence of An Employee's Emotional Intelligenc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2007.
- [15] H. J. Park, "The ego-resilience is the perception of stress, stress coping and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1996.
- [16] B. G. Guerny, "Relationship enhancement: Skill training programs for therapy, problem prevention and enrichment". San Francisco: Jossey-Bass, 1977.
- [17] S. M. Mun, "A study on the Effect of Human Relations Training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19(2), pp.195-204, 1980.
- [18] H. S. Jang, "The association between self-esteem, relationship style, and etiquette implementation in adolesc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University, Seoul, 2008.
- [19] H. J. Jeon, H. Y. Yom, "Roles of Empower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Embeddedness and Turnover Intension among General Hospital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20(3), pp.302-312, 2014.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4.20.3.302>
- [20] O. S. Lee, M. O. Gu, "Development and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Program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Mixed Methods Resear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4(6), pp.682-696, 2014.
DOI: <http://dx.doi.org/10.4040/jkan.2014.44.6.682>
- [21] H. S. Park, J. H. Ha, M. H. Lee, H. J.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tress Coping of Nurse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21(4), pp.466-474, 2014.
- [22] S. B. Im, M. K. Cho, M. R. Hur, "Factors to Affect Turnover Intention of Nurse: Focusing on Personal, Situational and Interpersonal Relation Variable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2(4), pp.314-323, 2013.
DOI: <http://dx.doi.org/10.5807/kjohn.2013.22.4.314>
- [23] H. J. Cho, M. S. Jung, "Effect of Empathy, Resilience, Self-care on Compassion Fatigue in Oncology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20(4), pp.373-382, 2014.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4.20.4.373>
- [24] S. Y. Kim, "The effect of Nurse's Ego-resilience on stress response and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2014.
- [25] A. S. Lee, C. K. Yu, J. K. Park.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Ego-resilience on Nursing Performance of Hospital Nurse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1(3), pp.283-289, 2012.
DOI: <http://dx.doi.org/10.5807/kjohn.2012.21.3.283>
- [26] E. J. Shin, "Emotional Intelligence, Ego Resilien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2012.

이 외 선(Oi - Sun Lee)

[정회원]



- 2001년 2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14년 2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감성지능, 성인간호

구 미 옥(Mee - Ock Gu)

[정회원]



- 1982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1992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1984년 11월 ~ 현재 :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관심분야>
근거기반, 당뇨

김 미 정(Mi - Jung Kim)

[정회원]



- 2009년 8월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15년 2월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창원문성대학 간호과 조교수

<관심분야>
정신장애인 재활, 자살